

몇 가지 幼·小兒 疾患의 臨床例

李 鍾 馨*

自古로 幼·小兒의 병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였다. 氣血이 未充하고, 形質이 柔脆하며, 아픔이나 괴로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病을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렵고 치료방법도 柔軟한 방법으로 對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.

그러나 幼·小兒의 病은 一般的으로 단순한 境遇가 많고 또 生理的 成長機能이 旺盛한 시기여서 治癒力도 旺盛하여 어느정도의 病은 잘 治癒되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.

따라서 幼·小兒는 醫學的으로 몇가지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.

첫째는, 外部的인 保護가 필요하고, 둘째는, 成長에 必要한 營養供與가 充分해야 하며, 셋째는 精神的 成長에 잘 對備해야 한다.

韓醫學에서는 이런 점에 대하여 이미 古來로부터 着眼되어 특별히 幼兒保護法, 調護歌, 養子十法, 乳哺法등 細心한 醫學的 配慮가 있어왔음을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특히나 幼·小兒의 疾患은 그 診察부터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相兒法, 聽聲法, 虎口三關診法등 特殊한 四診法을 고안했을뿐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保護와 成長을 爲主로 하면서 驚·熱·滯·泄·疳·癰·痘 등의 耗損性疾患의 防止에 더욱 注力하여 온 것이다.

幼·小兒는 成長速度가 가장 旺盛한 시기라는 점에서 人生過程중에서 가장 盛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陰質의 뒷받침을 가장

필요로 하는 時期인 때문에 陰性滋養分을 많이 供與해야 하며, 또한 盛陽이란 精神力의 旺盛도 의미하기 때문에 情緒, 感情, 知力등의 毀損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.

1) 虛弱兒

虛弱兒라고 하면 그 基準이 매우 애매하지만 그러나 임상을 통해서 보면 흔히 만나게 되는 例이다.

우선 虛弱兒의 定義부터 考察해 보면 望診上으로 우선 몸이 弱해 보이고 骨格이 가늘며 피부가 軟弱하고 脈을 많이 흘린다. 問診上으로는 음식을 잘 안먹거나 偏食을 하고 慢性的으로 泄瀉를 잘 하며 짜증과 보챔이 심하나 切診으로는 脈이 纖細微弱하고 體重이 標準未達이며 특히 耳後 또는 耳下에 콩알같은 淋巴腺腫이 한개 또는 여러개가 생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.

이런 幼·小兒는 대개 過敏性體質이거나 腺病性體質에 속하며 혹은 疳虫疾患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體質은 일찍부터 體質을 改善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, 이 경우가 바로 韓方의 特長이라 할만 하다.

물론, 症候에 따라 여러가지 處方이 선택될 수 있지만 本人이 잘 쓰는 처방으로는 六味地黃湯이다. (熟地黃 10.0g, 山茱萸·山藥 各 6.0

* 서울 東國大附屬韓方病院

g, 白茯苓, 牡丹皮, 澤瀉 各 4.0g, 薑, 棗)
 自汗一加 黃耆, 白朮, 盜汗一加 白芍藥, 五味子, 虛血一加 鹿茸 등.

2) 泄瀉

특히 幼兒일때의 泄瀉는 急性이면 脫水症을 이르기 쉽고 慢性인 경우는 極도의 虛弱兒로 되기 쉽다. 대개는 젖이나 牛乳를 갈아 먹일 때 잘 발생한다. 또는 過食이나 배를 차게 했을 때 또는 놀란 일이 있을 때 일어난다. 이것 역시 過敏性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하면 慢驚風, 慢脾風 등의 腦症狀을 일으키기도 하고 慢性化하면 癱瘓같은 消耗性疾患이 되기도 한다.

本人이 잘 쓰는 處方은 역시 啓脾湯加味方이다. (山查子 20.0g, 白朮, 山藥, 蓮子肉 各 6.0g, 人蔘, 陳皮, 澤瀉 各 4.0g, 訶子肉 3.0g, 炙甘草 2.0g, 薑, 棗)

腹痛에 加 白芍藥炒, 溏泄에 加 白扁豆炒, 烏梅.

3) 喘息

喘息 즉 氣管支喘息은 요즘 어린이들에게서 發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. 대개는 <알레르기>성 體質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보아지며 體質改善 등 미리부터 잘 豫防하는 등의 措置가 필요하다. 비록 成長하면 體質도 바뀌어진다고 하지만 小兒 喘息患者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 <알레르기>등의 特異體質이 늘고 있음이 확실하다.

늘 感氣를 앓고 기침과 함께 숨이 차며 심하면 가슴에서 喘鳴音이 들리고 특히 밤에 더하다.

一般的으로 小青龍湯을 많이 쓰는 경향이나 本人은 解表二陳湯을 주로 응용한다.

(半夏 6.0g, 陳皮, 赤茯苓 各 4.0g, 麻黃, 蘇葉, 桔梗, 杏仁, 桑白皮, 紫莞, 貝母, 炙甘草, 生薑 各 2.0g).

麻黃, 蘇葉의 解表, 半夏, 茯苓의 祛痰, 杏仁, 桑白皮 등의 鎮咳, 有熱이면 加 黃芩, 柴胡, 痰多면 加 瓜蒌仁, 口渴이면 加 葛根 天花粉, 역시 麻黃의 適應與否를 잘 파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.

그 밖에 鍼灸治療 및 物理治療를 병행 한다. 喘息發作時에는 이와같이 對症治療法이 적용되지만 <알레르기>성 體質을 改善하는 것이 根本治療가 되는 것이므로 喘息이 가라앉은 후에는 무엇보다도 體質을 改善할 수 있는 治療法이 필요하다.

여기에도 많은 처방이 있겠지만 本人이 잘 쓰는 處方은 導痰湯加味方이다.

(半夏 6.0g, 南星泡, 陳皮, 枳殼, 赤茯苓, 甘草, 生薑 各 4.0g)

이 處方은 체내의 老廢物質을 淨化시키며 體內를 淸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導痰湯에 小兒의 補陰劑인 六味地黃湯을 合方하여 長期間 사용하는 것이다.

4) 因驚性 疾患

幼·小兒는 精神的으로 纖細하기때문에 因驚性疾患이 참으로 많다. 幼兒시에 혹 목욕을 시키다가도 놀라서 發病하기 쉽고 소리나 動作에도 놀래는 일이 많다.

이런 놀램으로 因해서 일어나는 疾患을 보면 주로 驚熱, 驚悸, 驚風, 驚瀉, 驚滯, 驚忤, 驚癇등 腦症狀을 동반하여 發病하는 경우가 많다.

잘 놀래고 心情이 매우 불안하여 神經質의으로 짜증을 잘 내고 대개는 胃腸疾患을 수반하며, 심하면 입술이나 이마에 靑脈이 露程되

고 一見 몸시 瘦脊해 지는것이 특징이다.
治療法으로는 有熱에 小兒清心元, 胃腸장애에
麝香蘇合元등을 잘 쓰지만 여기에 결드려서 本

人은 虎口三關의 風關부위에 刺絡을 하면 效果
가 좋아서 이런경우 늘 刺絡을 실시한다.